

[원고1]

Talyor Swift: Speech in NYU, 2022.



Every choice you make leads to the next choice which leads to the next, and I know it's hard to know sometimes which path to take. There will be times in life when you need to stand up for yourself. Times when the right thing is to back down and apologize. Times when the right thing is to fight, times when the right thing is to turn and run. Times to hold on with all you have and times to let go with grace. Sometimes the right thing to do is to throw out the old schools of thought in the name of progress and reform. Sometimes the right thing to do is to listen to the wisdom of those who have come before us. How will you know what the right choice is in these crucial moments? You won't.

How do I give advice to this many people about their life choices? I won't. So I won't tell you what to do because no one likes that. I will, however, give you some life hacks I wish I knew when I was starting out my dreams of a career, and navigating life, love, pressure, choices, shame, hope and friendship.

The first of which is...life can be heavy, especially if you try to carry it all at once. Part of growing up and moving into new chapters of your life is about catch and release.

Secondly, learn to live alongside cringe. No matter how hard you try to avoid being cringe, you will look back on your life and cringe retrospectively. Cringe is unavoidable over a lifetime. Even the term "cringe" might someday be deemed "cringe."

I leave you with this: We are led by our gut instincts, our intuition, our desires and fears, our scars and our dreams. And you will screw it up sometimes. So will I. And when I do, you will most likely read about on the internet. Anyway...hard things will happen to us. We will recover. We will learn from it. We will grow more resilient because of it. Thank you very much.

[원고1] 번역본

테일러 스위프트: 뉴욕대 졸업 연설, 2022.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다음 선택으로 이끌어 주며 그 선택은 또 다시 다음 선택으로 이어지게 하지요. 때로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알기 힘들죠. 살다 보면 나 자신을 위해 나서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러서서 사과하는 것이 옳을 때가 있을 것이고, 맞서 싸우는 것이 옳을 때, 돌아서서 도망가는 것이 옳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붙잡을 때와 너그러이 놓아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진보와 개혁의 이름으로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 감히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같은 말은 안 할 것입니다. 누구든 듣고 싶지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꿈꾸는 일을 시작하고 인생, 사랑, 압박, 선택, 수치심, 희망, 우정을 탐색할 때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몇 가지 인생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 무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짊어지려고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성장하고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는 붙들기와 놓아주기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움츠림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무리 움츠러들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인생을 되돌아보며 움츠러들게 될 것입니다. Cringe는 평생 동안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cringe"라는 용어조차도 언젠가는 "cringe"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감, 직관, 욕망과 두려움, 상처와 꿈에 이끌리게 됩니다. 가끔은 망가질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구요. 그리고 제가 망가진다면 아마도 인터넷에서 읽게 되시겠지요. 어쨌든... 힘든 일은 늘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그로부터 배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욱 더 탄력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고2]

“The Decision to Go to the Moon” by John F. Kennedy. Rice University. May 25, 1961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because that goal will serve to organize and measure the best of our energies and skills, because that challenge is one that we are willing to accept, one we are unwilling to postpone, and one which we intend to win, and the others, too.

It is for these reasons that I regard the decision last year to shift our efforts in space from low to high gear as among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that will be made during my (incumbency in the office of the) Presidency.

I think we're going to do it, and I think that we must pay what needs to be paid. I don't think we ought to waste any money, but I think we ought to do the job. And this will be done in the decade of the Sixties. It may be done while some of you are still here at school at this college and university. It will be done during the terms of office of some of the people who sit here on this platform. But it will be done. And it will be done before the end of this decade.

Many years ago the great British explorer George Mallory, who was to die on Mount Everest, was asked why he wanted to climb it. He said, "Because it is there."

Well, space is there, and we're going to climb it, and the moon and the planets are there, and new hopes for knowledge and peace are there. And, therefore, as we set sail we ask God's blessing on the most hazardous and dangerous and greatest adventure on which man has ever embarked. Thank you.

[원고2] 번역본

“달 탐사 결정 연설” 존에프 케네디 대통령, 라이스대학교.

1961년 5월 25일,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10년 안에 달에 가서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쉬워서 하는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우리의 에너지와 기술을 최고로 조직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미룰 수 없는 것이며,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승리하려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작년에 우주 분야에서의 우리의 노력을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을 제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기간 중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60년대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여러분 중 몇몇이 아직 이 대학에 있는 동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플랫폼에 앉아 있는 여러분 중 몇 분의 임기 동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래전 에베레스트 산에서 사망한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 조지 말로리는 왜 그 산에 오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음, 우주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오를 것이고, 달과 행성들이 거기에 있고, 지식과 평화를 향한 새로운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해를 시작하면서 인간이 한 번도 시작하지 못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대한 모험에 대해 신의 축복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고3]

Malala Yousafzai: Nobel Peace Prize acceptance speech(2014)



Dear sisters and brothers, today is a day of great happiness for me. I am humbled that the Nobel Committee has selected me for this precious award. This award is not just for me. It is for those forgotten children who want education. It is for those frightened children who want peace. It is for those voiceless children who want change.

We had a thirst for education, we had a thirst for education because our future was right there in that classroom. We would sit and learn and read together. We loved to wear neat and tidy school uniforms and we would sit there with big dreams in our eyes. We wanted to make our parents proud and prove that we could also excel in our studies and achieve those goals, which some people think only boys can. Girls were stopped from going to school.

When my world suddenly changed, my priorities changed too. I had two options. One was to remain silent and wait to be killed. And the second was to speak up and then be killed. I chose the second one. I decided to speak up. The terrorists tried to stop us and attacked me and my friends who are here today, on our school bus in 2012, but neither their ideas nor their bullets could win. We survived. And since that day, our voices have grown louder and louder.

This is where I will begin, but it is not where I will stop. I will continue this fight until I see every child, every child in school. We have already taken many steps. Now it is time to take a leap. Why is it that giving guns is so easy but giving books is so hard? Why is it that making tanks is so easy, but building schools is so hard?

We are living in the modern age and we believe that nothing is impossible. Let us become the first generation to decide to be the last that sees empty classrooms, lost childhoods, and wasted potentials. Let this be the last time that a girl or a boy spends their childhood in a factory. Let this be the last time that a child loses life in war. Let this be the last time that we see a child out of school. Let this end with us. Let's begin this ending together, today, right here, right now. Let's begin this ending now. Thank you so much.

[원고3] 번역본

말라라 유사프자이: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2014)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이 제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날입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제게 이런 고귀한 상을 주시다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상은 저를 위한 상이 아닙니다.

이 상은 교육받기 원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어린이와 변화를 원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어린이를 위한 상입니다.

우리는 교육에 목말라 있습니다. 앉아서 배우고 함께 읽는 바로 그 교실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끔한 교복을 입고 앉아서 눈에는 큰 꿈을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목표를 달성하여 부모님들의 자랑이 되는 것이 남자아이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자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의 세상이 바뀌었을 때 제 모든 것도 바뀌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만히 침묵을 지키면서 죽는 것, 다른 하나는 당당히 말하고 나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는 저를 막으려고 했고, 2012년 오늘 여기 함께 온 제 친구들과 제가 탄 통학버스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총알 모두 저희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날 이후로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진보를 거두었고, 이제는 도약할 때입니다. 총을 주는 것은 쉽게 하면서 책을 주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탱크는 쉽게 만들면서 학교를 짓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를 끝으로 텅 빈 교실과 유년시절이 박탈되고 잠재력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공장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는 것을 끝나도록 합시다. 어린이가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일도 끝나도록 합시다. 어린이가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도 끝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끝냅시다. 이 모든 끝맺음을 오늘 바로 여기에서 함께 시작합시다. 지금 끝낼 수 있도록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